













예로부터 금수강산으로 일러오는 풍화곡은 그 어디에나 절승경개이지만 그중에서도 칠보산은 명산으로서의 특이한 경관을 나타내는 명승지로 되고있다.

동해안의 북부에 있는 칠보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년전에 백두화산줄기에서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굳어진 화성암들의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에 의하여 기묘하고 수려한 자연미를 이룬 명산이다.

그러므로 칠보산은 다른 명산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색다른 산악미, 계곡미, 바다가경치를 나타내고있는 명승지로 되고있다. 칠보산의 봉우리들과 산발들은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과 수림

### 천 하 절 경 칠 보 산

우거진 다종다양한 나무들로 하여 자연조각미와 풍치수려한 모습을 나타내고있으며 바다가경치 역시 규암조석으로 이루어진 바위절벽과 기묘한 바위, 섬들로써 자연 절경을 펼쳐보이고있다.

특유우거진 깊은 골짜기마다에 펼쳐진 아름다운 폭포, 담소들로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있는 칠보산의 계곡들은 칠보산 변화무쌍한 자태를 나타내고있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이 산의 이름을 일곱가지 보물에 비유하여 《칠보산》이라고 부르면서 관

북지방의 명승지로 여겨왔으며 칠보라 아름답게 단장하는 칠보산의 자연경치를 두고 봄이면 백화만발한 《꽃동산》,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록음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라는 《홍화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단장한 《설백산》이라고 불려왔다.

칠보산의 중부에 높이 솟아있는 상매봉(1103m)은 칠보산줄기의 주요목표의 하나로서 북쪽의 박달령, 천덕봉, 삼각봉, 남쪽의 하매봉, 까치봉, 향로봉 등과 잇닿아 칠보산의 중심런봉을 이루고있다.

이 산줄기는 삼각봉으로부터 북으로 마단덕, 장쾌산, 강릉산을 거쳐 어랑단까지 뻗어있고 남으로는 까치봉으로 부터 시루봉, 마유산을 거쳐 무수단까지 뻗어있다.

천하절경 칠보산에는 오래전부터 산수풍경을 즐기는 유람객들과 이름난 시인들이 직접 가보고 느낀 감정을 글로써 표현한 기행문, 시가들과 칠보산일대의 인민들의 삶이 창조되어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내칠보는 거세차고 웅장한 수많은 봉우리들과 기묘하고

색다른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어 천태만상의 장엄하고 황홀한 산악미를 나타내고있다. 외칠보는 칠보산의 주봉인 상매봉과 그 동쪽의 천불봉 주변의 절승경개인 내칠보와 바다가경치인 해칠보지역을 제외한 칠보산에서 이루어진 명승지이다. 해칠보는 바다가경치, 해안경치를 보여주는 명승지이다.

칠보산의 수많은 봉우리와 기묘한 바위, 폭포와 담소, 특이한 계곡과 섬 등의 명소들과 그에 깃든 전설들은 칠보산의 풍치를 더욱 인상깊이 느낄수 있게 하여주고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 고상한 민족적감정을 더 잘 알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김준경

### 최 근 도시형성발전추세

세계적으로 도시의 건축형성을 특색있게 하면서 생태도시, 지능도시를 건설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도시중심과 중심형성축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건축과 풍경, 도로 등 여러 축들을 연관시켜 구성하고있으며 기본형성축을 보조구성축들로 연결시켜 공간을 중심있게 형성하고있다. 거리와 구획의 넓은 건물들을 통채로 들어내고 고층, 초고층건물들을 형성상요구에 맞게 배치하고 집약화된 덩치큰 건물들을 배치하는 경우에도 간격을 넓히고 원림조성도 그에 맞게 하여 시원한 공간을 조성하고있다.

공공건물과 살림집의 부형성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하고있다. 수도와 지방도시들의 개성적특성을 살리고 중심부뿐아니라 골목들도 현대적으로 개진하고있으며 철도역과 철길주변형성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건설공법에 의한 건설이

보편화되고있다.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재를 쓰고 재생에너지기를 리용하는 생태건물을 건설하고있다.

목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생태환경이 보장된 도시를 꾸리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여기에서는 합리적인 특화체계와 원림조성의 립체화를 실현하고 도시 주변 산림을 강화천수림과 공원, 유원지와 연결시켜 맑은 공기를 도시안으로 끌어들이고있다.

오염된 공기와 폐설물들을 고도정화기술에 의하여 처리하며 지열, 태양열, 풍력, 조수력 등 자연에너지와 재생자원을 적극 리용하고 있는것도 주목을 끌고있다.

도시에 다채로운 풍경을 조성하고 역사문화유적들을 적극 보호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그리고 사람들속에 생태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고 생태학의 원리에 기

초하여 생태도시건설을 목적 지향성있게 하고있다. 도시의 지능화를 새 세기 도시건설의 주요목표의 하나로 제기하고 실현해나가고있다. 건축물들을 비롯한 도시 공간자료와 사회경제자료들을 모두 수자화하고 교육문화봉사의 지능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가상현실기술을 응용하여 도시를 설계하고 재해를 방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류동소비스간을 줄이면서도 려객교통을 위주로 하는 차길, 목지, 위 음길을 구성하고있으며 료전기들이 안전하게 빨리 움직일수 있도록 조종하는 일명 녹색신호전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교통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박사 김래철

우리 나라 사람의 뽀글이는 생활도구는 대체로 그 지름이 45cm가량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어깨폭과 근사한 길이로서 두손으로 물건을 나르거나 작업할 때 효율을 가장 높게 할수 있는 수치라고 한다.

키가 150cm인 사람의 뽀글이는 15cm이고 키가 170cm인 사람의 뽀글이는 17cm라고 한다. 이것이 상식화되어 우리 선조들은 출입문을 비롯하여 각종 구조물을 세울 때 자가 없이도 리용하기에 편리한 길이와 높이를 선택하였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리용하고있는 모든 도구들도 사람의 인체구조에 가장 합리적인 길이와 높이가 되어있다.

대야, 소반(자그마한 밥상), 삼대기, 키, 시루 등 두손으로 운반하고 조작하

는 생활도구는 대체로 그 지름이 45cm가량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어깨폭과 근사한 길이로서 두손으로 물건을 나르거나 작업할 때 효율을 가장 높게 할수 있는 수치라고 한다.

키가 150cm인 사람의 뽀글이는 15cm이고 키가 170cm인 사람의 뽀글이는 17cm라고 한다. 이것이 상식화되어 우리 선조들은 출입문을 비롯하여 각종 구조물을 세울 때 자가 없이도 리용하기에 편리한 길이와 높이를 선택하였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리용하고있는 모든 도구들도 사람의 인체구조에 가장 합리적인 길이와 높이가 되어있다.

대야, 소반(자그마한 밥상), 삼대기, 키, 시루 등 두손으로 운반하고 조작하

본사기자

얼핏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왼발과 오른발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양쪽발의 길이는 서로 차이나며 발의 길이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거나 시대가 변하는데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한다.

어느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8.8%가 《구두를 신었을 때 한쪽이 안맞는다.》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양쪽발의 길이가 같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600명의 발을 측정해본 결과 왼발이 오른발보다 평균 0.6mm 더 길다는것이 밝혀졌다.

왼발이 오른발보다 더 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발잡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고 한다. 실제로 공을 칠 때 오른발잡이는 왼발로 몸을 균형을 잡고 오른발로 공을 차기때문에 왼발이 주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므로 오른발보다 길어졌다것이다.

본사기자

발의 길이는 나이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한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발은 짧아지는데 60살 이상인 사람의 발은 20, 30대보다 약 2cm 가량 짧다는것이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현시기 사람들의 발은 지난 시기 사람의 발보다 크기는 9mm, 작게는 4mm가 길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식생활의 변화로 충분한 영양성취가 가능해지면서 그 원인을 찾고있다.

전문가들은 발에는 수천수만개의 말초신경이 신체의 그 어느 부위보다 조밀하게 모여있고 촉각이 예민하여 매우 중요한 부위라고 하면서 발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을것을 권고하고있다. 모양만 좋은 신발은 나이들어 발에 변형이 오게 하고 관절에 고통을 주는 등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 단편소설 모성의 권력 (7)

글 김혜영, 그림 김윤일

화학공업성 부국장인 남편은 지방출장중이어서 없었고 아들은 먼저 잠이 들었는데 다랑다랑 고고는 소리만이 귀맛있게 울려온다.

부엌에는 고소한 기름냄새가 짙게 퍼져 있는데 아들의 숨이 가쁜듯한 여러가지 음식 그릇들이 식탁을 채우고있었다. 식탁보우에는 《밥과 국은 가마속에 있어요》라는 글쭉지까지 놓였다.

(원 녀석두...)

무어라 말할수 없는 자부심과 행복감을 뿌듯이 느끼며 예향은 아들의 방으로 건너갔다.

웁푼 눈썹속에서 맑은 눈썹을 살피고 감고 입을 열어 벌린채 단잠에 든 아들의 얼굴은 볼수록 어찌보고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잠든 모습을 정겨운 눈길로 한동안 응시하고 나서야 자기 침실로 가곤 하는것은 예향의 굳어진 습관이었다.

만일 숨소리가 고르롭지 못하거나 회황은 얼굴에 약

한 연구집단은 111명에

본사기자

말을 빨리 하면 건강에 해롭다

남이 미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말을 빨리 하면 건강에 매우 해롭다. 즉 심장병에 걸릴수 있다.

사람이 숨이 가쁠 정도로 말을 빨리 하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근부담이 가해지며 반면에 천천히 읽으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혈관상태가 안정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다시 돌려줘!》

형: 《애, 너 그 옛을 나에게 좀 주렴!》

동생: 《응, 줄레니 내 말을 뉘든지 다 들어줄래?》

형: 《그래 들어주마.》

동생: 《좋아, 내가 옛을 줄레니 나에게 곧 다시 돌려줘!》

안 일호는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주었고 방학때면 평양에 있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몇달째면 함께 유원지에 가 보트놀이도 하였고 극장구경도 하였으며 국수를 좋아하는 예향 위해 옥류관에도 가끔 데리고갔다.

그런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예향의 가슴속에서는 이성에 대한련모의 감정이 불꽃처럼 자라났다.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인 그 사나이에게서 단순히 오빠로서의 보호만이 아닌 열렬한 애무의 갈망을 느꼈을 때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렁거림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안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싶었던것이다.

남편의 사랑받는 안해로,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로...

그것은 녀성으로서 누릴수 있는 최대의 행복일것이다. 내가 과연 그런 행복의 향유자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자 것처럼 허물없던 일호와의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그안에 마주 서기만 하던 부부끼리말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했다.

본사기자

뒤늦게 달려온 일호가 종이에 쓴 자그마한 꾸레미와 함께 빨갛고 하얀 두송이의 장미꽃을 그에게 안겨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진행 1등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당의 령도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리해하는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강의시간: 1강의

송출날자: 주제100(2011)년 9월 28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속성음식인 밀쌈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구워낸 밀가루지집을 가지고 구워낸 고기와 남새 등을 넣어 싸먹는 방법으로 만드는 밀쌈은 빵사이에 햄(고기떡)이나 기름에 볶은 남새 같은것을 넣어 간단히 먹을수 있게 만든 음식인 샌드위치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속성음식이다.

밀쌈은 먹기에 편리할뿐 아니라 맛이 좋고 영양가가 매우 높다. 밀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닭고기, 양배추, 도마도, 홍당무, 단된장 등 10여가지의 원자재들 가운데서 닭고기하나만 놓고 보아도 세계적으로 최우수 영양식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뿐아니라 밀쌈에 들어가는 도마도와 단된장, 홍당무, 기름 등에도 여러가지 비타민, 광물질들이 풍부히 포함되어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은 금성식료공장에 현대적인 밀쌈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섰다. 새로 건설된 밀쌈작업장에 밀가루지집생산공정, 고기가공생산공정, 남새가공생산공정 등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속성식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은 금성식료공장에 현대적인 밀쌈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섰다. 새로 건설된 밀쌈작업장에 밀가루지집생산공정, 고기가공생산공정, 남새가공생산공정 등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속성식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를 기웃거렸는데 짐작 먹어보니 맛이 참 독특하다. 우리 민족음식인 단된장을 넣으니 맛이 한결 더 살아나는것 같다.》고 하면서 식구들에게도 맛보이려고 여러개 샅다며 즐겁게 웃었다.

《밀쌈을 먹으니 든든하고 기운이 솟는다. 지금껏 밥과 국을 먹어야 식사를 한것으로 여겨왔는데 그 인식을 바꾸었다. 이제부터는 식사한끼를 밀쌈으로 하려고 한다.》며 평양기료공공장 로동자 강영근(30살)도 자기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먹는 속성음식 밀쌈, 그로 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다양해지고 날로 윤택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인기를 끄는 속성음식 - 밀쌈

본사기자



유모아 《다시 돌려줘!》

형: 《애, 너 그 옛을 나에게 좀 주렴!》

동생: 《응, 줄레니 내 말을 뉘든지 다 들어줄래?》

형: 《그래 들어주마.》

동생: 《좋아, 내가 옛을 줄레니 나에게 곧 다시 돌려줘!》

뒤늦게 달려온 일호가 종이에 쓴 자그마한 꾸레미와 함께 빨갛고 하얀 두송이의 장미꽃을 그에게 안겨

예향은 보들보들한 꽃잎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때로부터 예향이 평양 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는동안 일호는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주었고 방학때면 평양에 있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몇달째면 함께 유원지에 가 보트놀이도 하였고 극장구경도 하였으며 국수를 좋아하는 예향 위해 옥류관에도 가끔 데리고갔다.

그런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예향의 가슴속에서는 이성에 대한련모의 감정이 불꽃처럼 자라났다.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인 그 사나이에게서 단순히 오빠로서의 보호만이 아닌 열렬한 애무의 갈망을 느꼈을 때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렁거림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안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싶었던것이다.

남편의 사랑받는 안해로,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로...

그것은 녀성으로서 누릴수 있는 최대의 행복일것이다. 내가 과연 그런 행복의 향유자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자 것처럼 허물없던 일호와의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그안에 마주 서기만 하던 부부끼리말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했다.

본사기자